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건축설계 특성과 단면 3층 단위체 起源에 관한 研究

윤재신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1. 서론

마르세이유(Marseilles)의 '거대 주거동'(Unite d'Habitation: Large residential unit)은 꼬르뷔지에(Le Corbusier)가 2차 세계 대전 후 최초로 설계한 건축물이다. 1945년 꼬르뷔지에는 프랑스 초대 재건 장관인 라울 도트르(Raoul Dautry)로부터 전후 복구작업의 일환으로 '거대 주거동' 설계를 의뢰 받았다. 수많은 난제와 반대에 봉착했던 이 프로젝트는 6번째 재건 장관이었던 유젠스 크로디우스-쁘띠(Eugene Claudius-Petit)의 절대적 도움으로 꼬르뷔지에의 설계대로 시공될 수 있었다. 그는 공중 보건 법규를 어기고 지어지는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을 실험적 건설 공사로 규정하여 건축 허가를 면제하여 주었다.¹⁾

건축사적 측면에서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은 브르탈리즘(Brutalism)이라는 건축 스타일을 선도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다.²⁾ 1920년대 순수파 규범의 가벼움과는 상반되는 베통 브뤼(beton brut)의 거친 장엄함은 전후

꼬르뷔지에 작품에 완전히 새로운 성격을 갖게 하였다.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표면 재질과 외관 성격은 새로운 건축 스타일의 시발점이지만, 도시 계획과 주거 설계의 측면에서 보면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은 꼬르뷔지에가 1920년대 이래로 도시형 주거에 관하여 끊임없이 추구하였던 이상적 주제와 원리 연구의 구체적 결과물이다.

꼬르뷔지에는 이성적이며, 국제적인 새로운 주거 질서를 건축과 도시에 부과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독창적 개념과 형태가 어떠한 이론적 배경과 건축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는지를 건축설계 특성을 분석하며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 계획, 주거동 설계, 단위주거 설계의 세 가지 레벨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건축설계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단면 3층 단위체의 창의성을 중시하여 이 형태의 생성 배경과 유사 설계안의 비교, 도출 과정을 조사 분석하여 건축설계의 기원 규명을 시도하였다.

2. 거대 주거동의 건축설계 특성

1) David Jenkins, Unite d'Habitation Marseilles, 1993, 17쪽 참조

2) Banham, R., The New Brutalism, 1966 참조

2.1 도시 계획과 거대 주거동

코르뷔지에는 1922년에 '3백만의 근대 도시'(A Contemporary City of Three Million Inhabitants) 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을 발전시켜 1930년에 '빛나는 도시'(The Radiant City) 계획을 발표하였다. 두 계획안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형태 구조는 구심형에서 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두 계획안에서 주거는 적은 건폐율을 갖고 있으면서도 높은 용적률을 수용하는 거대 주거동의 형태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거대 주거동을 통하여 도시의 고밀화를 유지하면서도, 자연 녹지를 넓게 확보하고 태양 빛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것이 코르뷔지에의 주거지구 계획의 목표였다. 코르뷔지에가 추구하는 목표는 과밀한 도시의 폐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도시 형태의 재정비였다.

에버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가 19세기에 제안했던 도시 개발 모델 '교외전원도시'(suburban garden city)에 대하여 코르뷔지에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코르뷔지에는 교외전원도시에서 나타나는 각 단위주거의 고립이 전통도시의 빈민가에서 발생하는 비위생적 군집과 같이 기계화 산업사회의 건축환경으로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단독주택과 연결되어야 하는 진입 동선의 낭비 때문에 교외전원도시가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교외전원도시의 수평적 전개를 수직적으로 쌓아 올려 거대 주거동을 만들면, 고밀도의 용적율을 유지하면서도 건물 사이에 넓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주거 지구를 계획할 수 있어서, 전원도시로서의 자연적 쾌적함과 도시로서의 기능적 경제성을 동시에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코르뷔지에는 주목하였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코르뷔지에의 거대 주거동 계획에 대한 교외전원도시의 영향은 매우 명백하며, 거대 주거동은 '수직전원도시'(vertical garden city)라고 종종 지칭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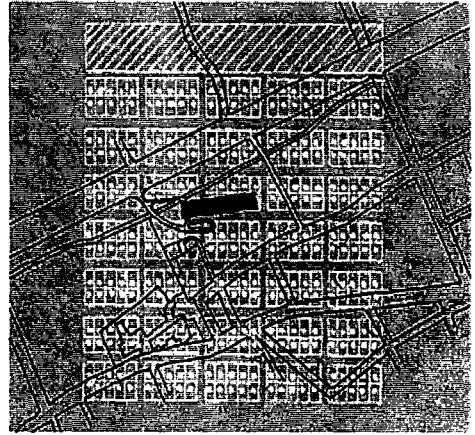


그림 1. 검은색 부분이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이고, 하얀색 부분은 동일한 인구를 수용하는 교외전원도시의 배치도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출현은 기존 도시의 공간 구조와 기능적 배치에 대한 도전이었다. 마르세이유 집합주거 계획안은 길이가 약 240M이고, 폭이 약 137M인 대지에, 길이가 137M, 폭이 25M, 높이가 70M에 이르는 판상형 거대 건축물이 남북 축에 정확히 맞추어 배치되어 있어서, 대지의 형상과 건축물이 약 20도의 각도를 이루며 틀어져 놓여 있다.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을 받치고 있는 6M 높이의 2열 기둥은 8.4m의 간격으로 총 34개 배열되어 있다. 기둥은 역삼각형의 형태로 아래 부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커져서 1층 바닥 면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폭이 약 4.5M에 이른다. 이와 같이 거대한 필로티 위에 위치하는 주거 건축물은 기존의 주거 도시 조직(urban tissue)과 매우 상반되어 일반인들에게 기존 질서에 대한 충들과 알력으로 인식되었다.

건축물 전체 높이의 중간 부분인 7층과 8층에는 공용 지원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데, 예측과는 달리 이 곳의 공중 가로와 상업 시설들이 빈약하게 이용되고 있다. 집합주거의 사회생활 프로그램이 잘못 추정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은 도시 주거환경의

3) Maurice Besset, Robin Kemball 역, Who was Le

Corbusier?, 149-154쪽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또한, 각 단위주거로 진입하는 내부 복도는 2.15M의 낮은 높이에 약 130M의 엄청난 길이를 갖고 있으나, 자연 채광은 건축물 평면의 중앙 부분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홀을 거쳐 유입되거나 끝 부분에 위치한 피난 계단을 거쳐 들어오는 것이 전부이므로 인공조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희미하게 비추어지는 내부 복도는 단독 주택의 진입로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림 2. 거대 주거동으로 구성된 주거 지역의 꼬르뷔지에 스케치, 1934년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 여러 채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배치된다면, 고밀도의 주거 단지가 넓은 녹지와 원활한 자동차 동선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건축환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주거 환경은 결국에 도시와 지방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전통적 사고에도 변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꼬르뷔지에는 생각하였다. 만일 거대 주거동들이 군집하는 주변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회로서의 거대 주거동은 그 자체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미완결된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능적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꼬르뷔지에는 주장하였다.

마드라그 구역(Madrague quarters)부지에 계획된 최초의 마르세이유의 집합주거 설계안에서도 독립된 하나의 거대 주거동만이 아니라 세 개의 주거 동들로 군집을 이루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려 시도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인식한 꼬르뷔지에는 도시에서의 주거 기능 보다는 건축물의 예술적 성취로서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가치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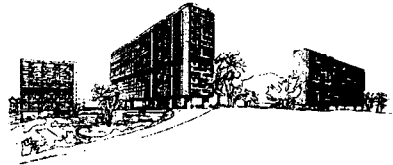


그림 3. 마그라드 구역에 군집하는 거대 주거 동 계획안 투시도, 1945년

요시하였다.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을 이전에 지어진 집합주거들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근본적인 차이 점은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이 갖고 있는 규모의 장대함과 그 실행의 대담성에 있다.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은 2차 세계대전 후에 발생했던 유럽 주거 문제에 보편적 해결안으로서 하나의 새로운 건축 유형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꼬르뷔지에의 가장 의미 있는 공헌 중에 하나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이 지어진 후에 계속 하여서 낭트(Nantes;1953), 베를린(Berlin;1958), 브리이(Briey;1961), 피르미니(Firminy;1968)에 같은 형태의 거대 주거동이 지어졌다.⁴ 건축물 유형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마르세이유의 거대 주거동은 하나의 연속선에서 그 시발점이 되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2.2 공동 생활과 거대 주거동

꼬르뷔지에는 집합주거에서의 일상 생활이 양면성을 갖는 두 생활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였다. 단위주거 안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인 가족 생활과 단위주거 밖에서 일어나는 공동적인 사회 생활이 함께 어우러져 집합주거에서의 일상 생활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집합주거에서의 이상적인 생활이 이와 같이 대별되는 개별적 생활과 공동적 생활의 조화로운 결합이라고 꼬르뷔지에게 확신하게 된 것은 그가 1907년경 프로랑스(Florence)의 변방에 있는 에마(Ema)의 수도원을 방문하였을 때, 그 곳의 수도원

4) Le Corbusier, Le Corbusier 1910-1965, 134-153쪽 참조

생활과 환경에서 느꼈던 체험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전한다.⁵ 꼬르뷔지에는 이 수도원에서 상반되거나 분리할 수 없는 두 개념, 즉 개인적 자유(individual freedom)와 집단적 조직(collective organization)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개인과 집단의 조화로운 균형이 꼬르뷔지가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집합주거 설계의 근본 목표였다.⁶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일반적인 주거로서의 모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꼬르뷔지에는 자신의 근본 생각인 개인과 집단의 조화로운 관계에 부합하는 집합주거에서의 생활 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당시 등장했던 주거 개념의 두 전통을 선별적으로 이용하였다. 진보 산업주의자의 '독채-협업 마을'(cottage-cooperative) 전통과 공동 사회주의자의 '기념비적-혁명 공동체'(monumental-revolutionary) 전통은 서로 정반대의 정치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⁷ 꼬르뷔지에는 독채-협업 마을 전통에서 독립된 주택이 핵가족의 중심적 존재라는 것과 자연과의 긴밀한 접촉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취하고, 19세기 초에 찰스 푸리에(Charles Fourier)가 제창한 사회주의적 생활 공동체(Phalanstery)가 추구하는 기념비적-혁명 공동체 전통에서는 주부를 일상적인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공용 지원 시설의 효용과 가치를 취하여 실현시키고자 시도한 것이 바로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계획이었다.

동시대 소련의 아방가르데와는 달리 꼬르뷔지에는 핵가족의 주거 단위를 부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핵가족의 단위주거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체계화되고 지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꼬르뷔지에는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 설계에서, 가족의 가치 체계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푸리에의 생활 공동체를 구현하는 기념비적 형태를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푸리에가 주장하였던 이상적 사회 집합체는 약 1,600명으로 구성된 다양한 가족 단위로 구성된 공동 사회이다.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은 동일한 규모의 거주자들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어, 독신 스튜디오로부터 10명의 가족을 위한 아파트까지 23가지의 다양한 단위주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⁸

가족과 사회의 조화로운 보조 관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단위주거를 집합주거 지원시설로부터 격리시켜서는 안된다고 꼬르뷔지에는 생각하였다. 그는 유아원, 유치원, 놀이터, 체육관, 마을회관, 가게들과 같이 단위 주거의 일상 생활에서 항상 필요로 하는 집합주거 지원시설들을 총칭하여 '주거의 연장'(Extensions of Dwelling)이라고 불렀다.⁹ 이 주거의 연장은 단위주거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단위주거에서의 생활이 이러한 공동 지원시설에서 사회 생활로 연장되지 않는다면 집합주거란 온전할 수 없다고 꼬르뷔지에는 생각하였다.

마르세이유의 거대 주거동에서의 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공용 시설은, 진입공간의 지상 층과, 건물의 중간에 위치한 상가 거리 층 및 옥상 정원 층의 세 공용 레벨에서 각기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갖고 있다. 지상 층에서는 장대한 피로티에 의하여 외부 녹지가 건물의 '빈포디움'(hollow podium)으로 관입(貫入)하고, 피로티의 중앙에는 기둥 간격으로 한 칸 반을 차지하는 부분을 실내로 만들어 진입 홀과 엘리베이터 홀, 관리자 부스등을 배치하였다. 특히 동쪽 바다 방향으로 실내 입구 공간이 돌출되고, 기차 모양의 조형적 지붕이 그 위에 날

5) Andre Wogenscky/ Stephen Sartarelli역, "The Unite d'Habitation at Marseille", in Le Corbusier, By Allen Brooks 편저, 117쪽 참조

6) Alan Plattus, "Le Corbusier: A Dialectical Itinerary", Deborah Gans, Le Corbusier Guid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5쪽 참조

7) Reyner Banham, "Le Corbusier and the Architecture of Mass Housing", Allen Brook 편저, Le Corbusier, 107-109쪽

8) Le Corbusier, Le Corbusier 1946-1952, Editions Girsberger Zurich, 10쪽 introduction 참조

9) Andre Wogenscky/ Stephen Sartarelli역, 앞 논문, 121쪽 참조.



그림 4. 서측 진입 공간과 피로티

렵하게 얹혀져 있어 시각적 초점을 형성한다.

7층과 8층의 공용 레벨에는 24객실의 호텔, 세탁소, 과자점, 정육점, 미용실, 사우나, 부동산 소개소와 임대 상가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 상가 가로의 외관에는 지느러미 모양의 수직 차양을 수평 방향으로 반복하여 배치하여 다른 일반 창 의 부분과 완전히 구분되게 입면이 디자인되어 있다. 이 공용 레벨의 서북쪽에는 2층 높이에 3.6m 폭과 45m 길이를 갖는 갤러리가 외기에 면하여 남북 방향으로 놓여져 있어 선형적 중심 가로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쪽 끝에는 지상 층으로 직접 내려갈 수 있는 외부 계단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 가로의 공용 레벨은 예측과는 달리 많이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후에 지어지는 4개의 다른 거대 주거동에서는 이 공중 상가 부분이 모두 빠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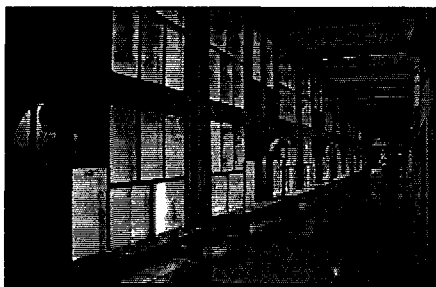


그림 5. 상가 레벨의 2층 높이 갤러리

옥상 층에는 체육관, 탁아소, 환기 굴뚝, 러닝트랙, 풀이 배치되어 있어 체육과 휴양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피로티 아래에 있는 지상

층의 공간은 원활한 진입동선을 위하여 광활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반하여, 옥상 층에는 코르뷔지에의 신건축 5원칙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안전하고 친밀한 옥상 정원이 만들어져 있다.

옥상 층에서는 건축적으로 표현된 은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철관을 접어서 만든 모양을 한 체육관과 자유로운 형태를 취한 연통, 그리고 높은 파라펫은 사람의 시선을 저 밖의 지중해로 향하게 한다. 마르세이유의 거대 주거동에서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해양선의 이미지를 쉽게 느낄 수 있다.¹⁰ 이러한 이미지는 멀리 외관에서 보이는 단순한 형태적 유추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물 안에서 자족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환경을 체험할 때 보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풀, 일광욕 마당, 체육관, 300m 러닝 트랙에서 생활하고 휴식을 취하는 거주자들의 삶은 해양선의 갑판에서 보내는 이상적 생활을 직설적으로 그리고



그림 6. 옥상 정원 레벨에서의 조망

있다.

2.3 구조 뼈대와 단위주거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 보다 선행되었던 주거 프로젝트의 도면들과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도면들이 함께 보관되었다는 사실은 코르

10) 코르뷔지에는 태평양을 횡단하는 해양선의 단면과 갑판의 모습을 건축과 연계하여 소개하고, 빛나는 도시에 소개된 거대 주거동의 모델을 이러한 해양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tanislaus Von Moos, *Le Corbusier Elements of a Synthesis*, 161쪽 참조

르뷔지에가 이 건물을 설계하는데 이전 여러 계획안들에 많이 의존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일반 구조와 시공 방식을 고려하여 볼 때 스위스 제네바에 꼬르뷔지에가 설계하여 지어진 아파트 건물 (Immeuble Clarte: 1930-1932)에서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제네바의 아파트는 완전히 표준화된 부품으로 이루어진 철골 구조로 시공되었다. 꼬르뷔지에는 마르세유 집합주거에서도 철골로 시공되기를 바랬으나 철골의 부족과 높은 가격 때문에 초기 스케치 단계에서 철골 구조를 버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건축물을 설계하였다.

최초의 설계안에서는 제네바의 아파트에서와 유사하게 자유로운 평면(free-plan)의 가능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각 단위주거의 부분들이 부품으로서 공장 생산되고,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조립되어 완성되고, 이 단위주거로 채워지는 격자형 구조 뼈대를 장 프로우브(Jean Prouve)가 소개하여 꼬르뷔지에와 보디엔스키(Bodiánsky)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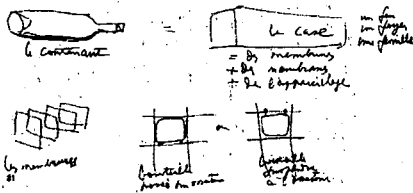


그림 7. 단위주거와 구조 뼈대를 병과 보관대에 비유한 꼬르뷔지에 스케치

꼬르뷔지에는 포도주 병이 갖는 순수파의 오브제-타입(objet-type) 의미를 상기시키며, 포도주 병이 포도주 병의 저장대에 끼워 보관되는 것에 비유하여 단위 주거가 격자형 구조 뼈대에 끼워 놓여지는 상황을 설명하였다.¹² 꼬

르뷔지에의 주장은 단위 주거가 생활의 필요 조건과 공장 생산의 조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하나의 본(本:type)으로 일반화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포도주를 담은 포도주 병과 같이 가족 생활을 담은 단위 주거가 미래에는 다량으로 공장 생산되어, 필요한 장소라면 어느 곳에서나 조립되어 설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꼬르뷔지에는 생각하였다. 각 단위주거가 집합체인 건축물로부터 분리하여 존재한다는 근본 개념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하여, 꼬르뷔지에는 각 단위주거를 건축물의 전체 격자형 구조 뼈대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조립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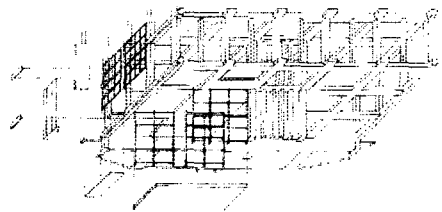


그림 8. 구조뼈대와 단위주거 조립 개념도

건축물의 전체 구조 뼈대를 이루는 철근 콘크리트 격자형 틀 안에서 각 단위주거는 철로 된 들보로 독립적으로 구조체가 만들어진다. 또한 각 단위 주거 내에 위치하는 붙박이 가구와 칸막이, 부엌 기구들은 표준화된 부품 요소들로 생산되어 그들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서 다른 단위주거들의 내부가 완성된다. 소음과 진동이 단위 주거에서 철근 콘크리트의 격자형 구조 뼈대로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위 주거의 강철 들보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뼈대 사이에 납 패드(lead pad)를 사용하고 있으며, 옆집과의 경계 벽은 광물 섬유(mineral wool)로 채운 나무 틀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원시적 방법을 통하여서도 방음과 음향적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이루어

11) David Jenkins, 앞의 책, 13쪽 참조

12) 오브제-타입(objet-type): 최대 효용의 이상을 추구하며 동시에 경제적 제작의 필요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물체(object)는 기계적 진화를 통해 필연적으로 하나의 본(type)으로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순수파의 기본 이론을 나

타내는 신조어. Curtis, W.,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172 쪽 참조

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울만하다.¹³⁾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에서는 중앙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이루어진 중심 코아와 좌우 끝 부분에 위치한 2개의 피난 계단으로 수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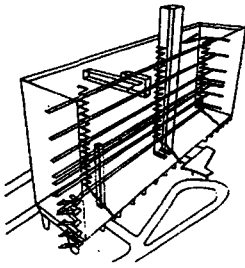


그림 9. 공용 동선도

통로를 이루며, 실내 가로가 이들을 수평적으로 연결하여 동선 체계를 이룬다. 337개의 단위주거가 실내 가로에 연결되며 18층 높이의 격자형 구조 뼈대에 끼워져 놓인다.

이 단위 주거들은 독신을 위한 것으로부터 8명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것까지 23개의 서로 다른 규모의 유형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기준형 단위주거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양한 다른 유형의 단위주거들은 수직 통로 부분과 남쪽면, 7/8층의 중앙 상가 열, 그리고 학교가 위치한 17층에 배치되어 있다. 꼬르뷔지에는 다양한 규모의 가족들이 혼합되어 구성되는 사회구조를 집합주거 건축물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믿음을 건축물 설계의 기본 방향에 적절히 수렴시키기 위하여, 기준형 단위주거를 주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건축물의 특수한 구역에 다양한 유형의 단위 주거들을 배치함으로 통일성과 다양성을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에서 함께 유지시키려 하였다.

자동차 이름인 시트로엥(Citrohan)을 자신이 설계한 주택 원형에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꼬르뷔지제가 단위 주거에 대하여 갖고 있던 '주거용 기계'(machine-habitat)에 대한 생각을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꼬르뷔지제가 도시주거 문제에 대하여 갖고 있던 생각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주거의 부족 사태를 다루기 위하여서는 대량생산이라는 방식을 취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동 집합주거의 문제는 새롭게 표준화되는 대중의 주거 요구를 시대가 제공하는 대량생산의 기술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집합주거는 시대 정신의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믿었다.¹⁴⁾ 전쟁에서 기계의 교훈을 실감했던 사람들은 공장생산의 효율성을 연장하면 주택을 경제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 꼬르뷔지에의 주거용 기계 슬로건은 이러한 당시 유럽 일반인들의 사고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2.4 단위주거와 단면 3층 단위체

단위주거는 2층 높이의 긴 벽으로 좌우가 한정되고 전면에는 2층 높이의 커다란 유리창을 두어 거실 공간을 외부로부터 한정하고 있다. 모듈러(Modulor)의 연구를 통하여 한개 층의 천장 높이는 2.26m로 정하여 졌으며, 거실의 열린 공간에서의 천장은 4.83m의 높이를 갖는다.¹⁵⁾ 각 16단위주거가 차지하는 전체 폭의 안목치수가 3.66m 밖에 되지 않으나, 외기에 면하는 위치에 거실이 2층의 열린 공간을 갖고 있으며, 거실의 전면이 모두 유리창에 의해 채광을 받고 있어서 좁다는 느낌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 거실 전면 유리창에서 상부인 2층 부분은 고정 창인데 반하여 하부인 1층 부분은 전부를 개방할 수 있는 접는 창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상당한 폭의 문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실 공간은 자연스럽게 발코니로 확장되고 있다.

14) Moos는 이와는 상반되게 프랑스 이성적 이상주의(rational ideal) 전통에서 기계란 단어가 위대한 존엄의 우주적이며 철학적인 은유로 통용되었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꼬르뷔지제가 그 의미로 machine habitat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Von Moos, S., 앞의 책, 51쪽 참조.

15)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설계에서 구체적인 치수는 모두 모듈러의 이론에 의하여 모두 결정되었다. Le Corbusier, The Modulor, Harvard university Press, 129-164쪽 참조

13) David Jenkins, 앞의 책, 14쪽.

일반적으로 단위 주거는 거실과 부엌, 부부 침실과 욕실, 그리고 아이들 침실과 샤워실의 세 가지 구성 요소들로 조합되어 이루어진다. 부엌은 화덕이라는 상징적 중심으로 내부 가로에 인접하여 단위주거의 중앙에 놓인다.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전면과 후면은 동서 향에 면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위주거는 동서 양쪽에서 모두 외기에 면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방이 외기에 면하는 한쪽 끝 편에 놓이면 부부 방이 그 반대쪽 끝 편에 각각 위치하게 된다. 건물의 남쪽 끝 부분에 위치한 단위 주거들은 남쪽 면으로만 외기에 면하기 때문에 부부 방과 아이들 방이 함께 남향을 바라보게 된다. 대부분의 각 단위 주거는 발코니를 동서 양편 끝에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일어나는 태양의 위치 변화에 온전히 대응할 수 있다. 발코니에서는 산이나 바다로 향한 조망을 통하여, 자연과 접할 수 있어 시골집의 정원 역할을 시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꼬르뷔지에는 발코니가 여름에는 시원함을 주고 겨울에는 따듯함을 주는 포티코(portico)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의 기본 형태가 갖는 가장 오랜 전통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코니에는 여름에 유리창을 통하여 들어오는 직사 일광의 유입을 막고 겨울에는 낮은 고도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들여려는 목적으로 브리즈 솔레유(brise-soleil)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건물이 남북으로 길게 놓여서 동, 서 면의 브리즈 솔레유가 햇빛 투과와 차단 기능을 실제로 작동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동, 서, 남 면의 브리즈 솔레유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햇빛을 받게 되는데 반하여 모든 브리즈 솔레유는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학적인 태양의 조절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빛의 유입과 투과에 관심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아이들의 두 방은 단위 주거의 폭을 반으로 나누어 1.8m 밖에 되지 않는 좁은 폭을 갖고 있어서 매우 협소하다. 그러나 이 칸막이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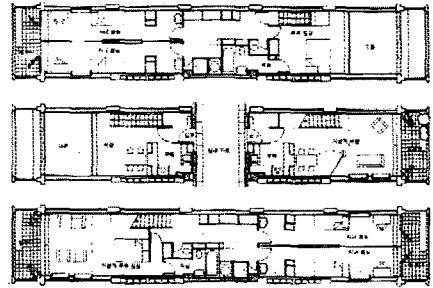


그림 10.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기준형 단위주거 평면도

의 중간에 미서기 문이 만들어져 있어서 필요시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사용의 융통성과 함께 폐쇄감을 완화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다. 거실 이 외의 곳에서도 아이들의 사회생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공간의 융통성 있는 변환을 시도하였다. 개인-사회의 조화이론이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도 재해석되어 적용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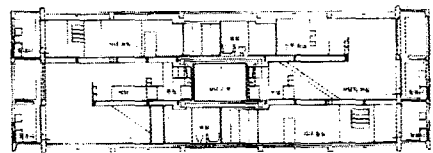


그림 11.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기준형 단위주거 단면도

지상 층의 밝은 입구를 통하여 진입한 다음 승강기를 타고 상승하여, 인공 조명이 비추는 어두운 실내 가로를 거쳐, 각 단위 주거의 거실 전면 창으로 향하는 공간의 전개과정은 자연 햇빛과 실내 조명의 대조와 반전의 주제를 갖는다. 단위주거 내에서도 동일한 햇빛과 실내 조명의 대조와 반전을 경험하도록 계획되었다. 각 단위주거에 진입하면 먼저 부엌과 식당을 거쳐 햇빛을 접하고, 그 다음 진입 층으로부터 내부 계단을 통하여 위 혹은 아래층의 밀폐되어 채광이 안 되는 중앙 홀로 연결되며, 그 후 다시 햇빛을 받는 침실에 이르는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기준형 단위 주거는 복층형 아파트가 서로 엇갈리면서 맞물려, 건물의 단면에서 세 개의 층이 하나의 단위체로 묶여지게 된다. 이 단면 3층 단위체의 중앙에는 실내 가로(interior street)라고 불리는 복도가 있어 위와 아래에 놓이는 단위 주거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진입 복도는 3개 층마다 하나씩 생겨나는 매우 경제적 단면 구조가 생겨난다. 이러한 단면 3층 단위체가 필로티 위로 2개 놓이고, 그 위에 공중 가로의 갤러리를 포함하는 2층의 상가가 놓이고, 다시 그 위에 단면의 단위체가 3개 올려지고, 그 위에 옥상 정원이 만들어져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전체 단면을 구성하고 있다.

중앙의 실내 가로로부터 한 단위주거는 위층으로 다른 단위주거는 아래층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두 단위주거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거실 공간이 만들어지며, 각 평면은 서로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 아래층에서 진입하여 위층으로 올라가는 단위주거에서는 아래층의 진입 부분에 부엌과 식당이 배치되고, 거실 공간이 이와 연결되어 한 공간을 이룬다. 위층에서는 부부 침실이 2층 높이의 거실 공간에 면하여 발코니 같은 형상을 갖게 되나 아래층의 거실과는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위층에서 진입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단위주거에서는 진입 층에 부엌과 식당이 배치되면 거실을 수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아래층에서 부부 침대가 거실 공간의 한 구역을 차지하여 배치된다. 그러므로 이 단위주거는 부부침실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문제를 갖는 평면 구조를 갖게 된다.

코르뷔지에에는 거실과 침대의 혼합이 그다지 큰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코르뷔지에의 바이젠호프(Weissenhof) 연립주거 평면에서도 침대는 거실의 한 구역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거실의 한 구역에 침대가 놓이게 되는 경우 일상 생활에서 프라이버시에 결정적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단면 3층 단위체는 경제적인 복도의 공유와 창의적인 단위 주거의 공간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아래층 단위주거의 단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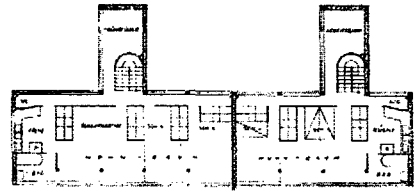


그림 12. 바이젠호프 연립주택 2층 평면도

3. 단위주거와 단면 단위체의 起源

3.1 애마의 수도원과 이뮤블르 빌라

5년간의 시공 기간을 거쳐서 1952년 10월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이 준공되어, 코르뷔지에가 당시 프랑스 재건 장관에게 건물을 양도하면서 연설한 내용에는 1907년 코르뷔지에가 방문한 플로랑스(Florence) 변방에 있는 애마(Ema)의 수도원, 1922년 발표된 시트로앵(Citrohan) 주택과 3백69만 근대도시의 이뮤블르 빌라(Immeuble Villas)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¹⁷

근대 도시의 주거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주거동으로 코르뷔지에가 제안한 이뮤블르 빌라(Immeubles Villas)는 유복한 도시 중산층의 수요를 겨냥하여 설계된 집합주거 계획안이다.¹⁸ 이뮤블르 빌라는 복층형의 빌라(Villa)들을 선형으로 조합한 판상형 아파트인데, 일자형이 굴곡되는 패턴과 직사각형의 중정을 규모에 따라 상반된 방법으로 둘러싸는 모자 형태의 계획안이 소개되었다. 이뮤블르 빌라의 옥상층에는 잘 발달된 공용 지원시설이

17) Le Corbusier, *Le Corbusier 1946-1952*, Editions Girsberger Zurich, 19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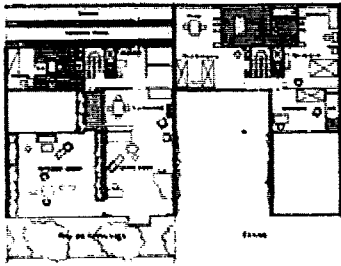


그림 13. 이뮤블르 빌라의 1, 2 층 평면도

갖추어져 있고, 각 단위주거인 빌라는 직사각형의 개별적 외부 정원을 한쪽에 갖고 있으며, 진입은 반대편의 복도로부터 이루어진다. 각 빌라의 개별적 외부 정원 옆에 접하여 2층 높이의 거실이 위치한다.

애마의 수도원에서 수도승의 주거 구역은 벽으로 구획된 2층의 단위주거들이 직사각형 중정의 주위를 둘러싸며 형성되어 있다. 각 단위주거는 중정의 반대편에 L자모양의 개별적 외부 정원을 갖고 있어서 단위주거를 통과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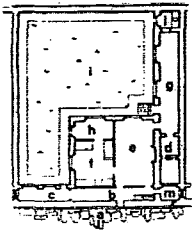


그림 14. 애마 수도원 단위주거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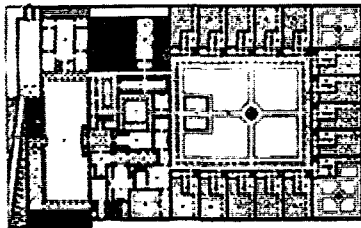


그림 15. 애마의 수도원 1층 배치 평면도

야만 중정으로부터 개별 외부 정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단위주거의 수도승 방들로부터는 정원을 넘어 저 멀리 보이는 투스칸(Tuscan) 언덕을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전체적인 형태와 외부 공간과의 연계적 구성, 진입방식을 고려하여 볼 때, □자형 이뮤블르 빌라에 대한 애마 수도원의 영향은 직접적이다. 이뮤블르 빌라의 진입 복도는 수도원 중정의 로지아에 해당한다. 이뮤블르 빌라에서는 공용 지원시설이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옥상층에 배치되고, 수도원에서는 공용 지원시설이 수평적으로 분리되어 교회 근처에 배치되어 있으나 공용 지원시설이 따로 분리되어 한 곳에 모여 있는 점은 동일하다. 이뮤블르 빌라의 단위주거와 애마 수도원의 단위주거는 모두 2층이며, 전체 평면이 폭이 약12m이고 깊이가 약16m의 직사각형의 규모로 만들어져 거의 일치한다. 이뮤블르 빌라의 단위주거 설계에 대한 애마 수도원의 단위주거의 영향 또한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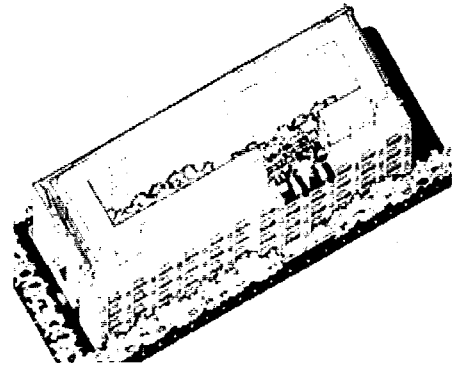


그림 16. □자형 이뮤블르 빌라 Axonometric

적이고 분명하다.

이뮤블르 빌라의 2층 높이를 갖는 거실 공간은 시트로앙(Citrohan) 주택과 매우 긴밀한 연관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2층 높이를 갖는 거실 공간은 꼬르뷔지에의 고향인 스

18) Immeubles Villas 계획안은 표준적인 주거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보편적 공동주택으로서 제안되었는데, 1925년 파리 예술 전시회(Paris Exposition des Arts)에서 하나의 주호가 건립되었다. 꼬르뷔지에는 당시 그 박람회를 지배하는 Art Deco 실내장식에 정면으로 반대하여 '순수파(purism)'의 기계미학을 이를 통하여 나타내려 하였다. 주호 그 자체와 그 안에 전시되는 모든 가구와 그림들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object-type들로 꾸며져서 기계적인 순수함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이미지를 전달하게 디자인되었다.

위스 라쇼드퐁(La-Chaux-de-Fonds)에서 1906년 그가 최초로 설계한 팔레 저택(Villa Fallet)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단위주거에서 나타나는 2층 높이의 거실 공간은 특정한 건축물에서 근원을 찾기보다는 꼬르뷔지에가 주거 건축에서 일관되게 시도한 중심 주제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뮤블르 빌라의 단위주거는 개별적 저택으로서는 적합할 수 있으나 아파트의 단위주거로서는 규모가 너무 크다.¹⁹ 이뮤블르 단위주거는 약 60m² 면적의 외부정원, 식모 방, 체육실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량생산이 되어 시공되더라도 집합주거로서의 경제적 이미지를 담고 있지 못하다. 이에 반하여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단위주거에는 외부 정원, 식모 방, 체육실이 없으며, 기준형 단위주거의 연면적이 이뮤블르 빌라의 단위주거 연면적의 65% 규모인 약 125m²이다.

1930년 브뤼셀(Brussels)에서 개최되었던 제 3차 CIAM(Congres Internationaux d'Architecture Moderne) 회의에서 도시 서민층을 위한 사회-민주적 주거 정책이 중심 과제로 토의되면서 꼬르뷔지에는 집합주거의 경제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빛나는 도시의 거대 주거동 계획에서는 각 거주자가, 중복도 배치 단위 주거의 경제적 규모로서 14m²의 개인 주거면적, 중복도 배치와 표준화 및 대량 생산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탐구하게 되었으며,²⁰ 이후의 집합주거 계획에서 꼬르뷔지에는 이 문제들에 관하여 새로운 해결안으로 3층마다 중복도를 갖는 단면 단위체를 구상하였다.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에서 2층인 기준형 단위주거, 2층 높이의 거실 공간, 외부 발코니에서 이뮤블르 빌라의 흔적을 찾아 볼 수는 있

으나, 진입 방식, 단위주거의 규모, 외부 정원의 유무 등과 같은 주거 설계의 전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볼 경우 마르세이유의 단위주거는 이뮤블르 빌라의 단위주거는 유사성이 매우 적다. 특히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3층 단면 단위체는 매우 독창적인 발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요소를 애마 수도원과 이뮤블르 빌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마르세이유 단위주거의 설계에 대한 애마 수도원과 이뮤블르 빌라 단위주거의 영향은 암시적일 뿐이다.

3.2 나콤핀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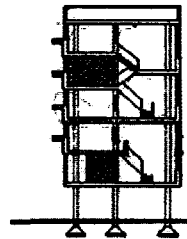


그림 17. 나콤핀 아파트 단면도

1920년대 소련에서 '동시대 건축가 동맹'(OSA: Union of Contemporary Architects)은 공동 주거에 관하여 연구하면서 부엌, 체육관, 도서관, 유아원 등의 공용 지원시설을 제공하는 대신에 단위주거의 규모를 축소하는 여러 창의적 집합주거 설계를 발표하였다.²¹ 동시

대 건축가 동맹의 회원이며, 구성주의 건축가였던 긴즈버그(Moisei Ginzburg)에 의하여 1928년에 설계된 나콤핀(Narkomfin) 아파트에는 세 가지 종류의 단위주거가 사용되었다.

나콤핀 아파트 단위주거의 독창적 아이디어는 거실 공간의 높이를 침실 공간의 높이보다 높게 설계하여 공간의 성격을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아래 두개 층에 위치한 단위주거는 연면적이 약 26평인 일반 복층형 아파트로서 거실 공간의 높이가 침실 공간 높이의 2배이다. 그 위에는 2개의 13평 단위주거가 단면에서 한 단위체를 이루는데, 침실 구역에서는 3개 층으로 나뉘어 중간층에 공용 복도가 위치하고, 거실 구역에서는 2개 층으로 나뉘어져 거실 공간

19) Roger Sherwood, Modern Housing Prototypes, Harvard University Press, 96-99쪽 참조

20) Le Corbusier, The Radiant City, 1963, 143-147쪽 참조

21) Curtis, W.,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201-215쪽 참조

의 높이가 침실 공간 높이의 1.5배인 독창적인 단위주거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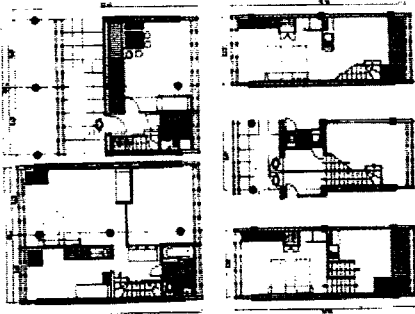


그림 18. 나코핀 아파트의 세 단위주거 평면도

마르세이유 거대주거동의 단면 3층 단위체와 나코핀 아파트의 단면 3층 단위체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3층 단면 단위체에 대한 나코핀 아파트의 영향은 직접적이고 분명하다. 나코핀 아파트의 26평 복층형 아파트 단면에서 침실 공간의 길이를 확장하고, 13평형 아파트 단면에서 3층마다 생성되는 공용 복도의 아이디어를 삽입하면 마르세이유의 단면 3층 단위체를 쉽게 도출해낼 수 있다.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 단위 주거의 장점은 2층 높이의 거실 공간으로 인하여 자연 채광의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실 공간에 면하는 2층에서도 침실, 식당과 같은 생활 공간을 배치할 수 있고, 따라서 판상형 집합주거가 깊은 폭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나코핀 아파트의 복도는 약 2.4m의 충분한 폭을 갖고 있어서 실내 가로역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외기에 면한 편복도이지만 난방이 되는 실내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겨울에 거주자의 활발한 이용을 유도한다.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에서 단면 3층 단위체의 중앙에는 3.0m 폭의 중복도 실내 가로가 위치한다.

긴즈버그와 꼬르뷔지에는 동시대 활동하던 건축가들이다. 나코핀 아파트에는 꼬르뷔지에의 건축 언어인 피로티, 옥상 정원 등이 활용

되었다. 꼬르뷔지에는 1928년과 1930년 사이에 최소한 3번 이상 모스크바를 방문하였고, 긴즈버그를 만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²²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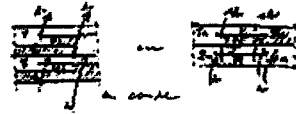


그림 19. 1933년 The Radiant City 계획안 중에 꼬르뷔지에의 단면 3층 단위체 다이어그램,

나코핀 아파트를 방문하고 내부 가로의 소란함을 비난하였다.²³ 1933년 출판된 빛나는 도시의 계획안 중에는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단면 3층 단위체를 확연히 나타내는 주거동의 단면 스케치와 다이어그램들이 있다.

꼬르뷔지에는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단면 3층 단위체에 대한 나코핀 아파트의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두 설계안의 연계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단면 3층 단위체의 독창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꼬르뷔제가 의도적으로 나코핀 아파트의 영향을 은폐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²⁴ 왜냐하면 건축가는 형태를 도출하는 자신의 머리 속 정보처리 과정에 대하여 투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억과 경험들이 조합되어 새로운 형태로 떠오르는 건축 설계의 과정은 더

22) 꼬르뷔지에는 1930년대 당시 긴즈버그가 개발하여 연구하던 선형 도시 계획안을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1940년 이후에 철도, 강, 운하를 따라 발전하는 선형 산업개발 모형을 제안하였다고 무스(Moos)는 주장하였다. Stanislaus von Moos, Le Corbusier : Elements of a Synthesis, MIT press, 206-207쪽 참조.

23) 정성현, 마르세이유 위니테 다비타시옹의 건축근원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4권, 11호, 189쪽 참조

24) 꼬르뷔지에는 실제로 빌라 라로시의 독창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디스틸의 영향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있다고 전한다. Yve-Alain Bois, Destijl et l'architecture en France, 98-103쪽 참조.

욱 불투명한 정보처리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축가가 언어를 통하여 주장하는 설계 영향 요소들을 설계안과 직접 연계하려는 연구는 본질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²⁵ 건축 설계의 기원과 영향 요소를 추적하는 연구는 건축가의 말보다는 설계안에 대하여서 철저한 조사 분석이 선행되고, 설계안의 유사성 규명과 설계안의 단계적 도출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엄밀한 인과 관계의 규명이 필수적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림 20.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 단면 3층 단위체 투시도

4. 결론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은 꼬르뷔지에의 새로운 도시 주거의 주제와 원리를 실험하는 연구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래의 이상 사회를 지향했던 CIAM의 1세대의 한 사람인 꼬르뷔지에는 새롭고 이성적이며, 국제적인 주거 질서를 건축과 도시에 부과하려고 하였다. 꼬르뷔지에는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을 통하여 집합주거의 단지 계획, 건물 설계, 단위주거 설계의 모든 레벨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형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건축설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도시 계획의 레벨에서는 밀집된 도시 저층 주거환경을 재정비하는 방법으로 고층의 거대 주거동을 멀리 떨어져 배치하여 형성되는 새로

운 도시 주거환경을 제안하였다. 꼬르뷔지에는 군집하는 거대 주거동의 배치로 교외전원도시의 자연적 쾌적함과 도시의 기능적 경제성을 동시에 유지시킬 수 있다 생각했으나, 이러한 주거 단지의 조성은 실현되지 않았다.

건물 설계의 레벨에서는 가족과 사회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지상, 옥상, 중앙의 특수한 세 공용 층이 각기 다른 공용 지원시설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거대 피로티, 실내 가로, 옥상 정원 등의 꼬르뷔지에 건축 어휘들이 성숙하게 구사되어 각 공용 층은 개성적 건축 형태를 갖게 하였다. 꼬르뷔지에는 다양한 가족 단위로 구성된 이상적 공동 사회를 수용하기 위하여서는 거대 주거동이 다양한 단위주거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기준형 단위주거를 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의 특수 구역에 다양한 유형의 단위주거를 배치함으로써 건축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단위주거의 적절한 조합을 이룩하였다. 또한 꼬르뷔지에는 거대 주거동의 단위주거가 오브제-타입의 근본 개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장 생산된 부품들이 현장에서 조립 완성되어 거대 주거동의 구조 뼈대에 끼워지는 시공 방법을 고안하였다.

단위주거의 레벨에서는 복층인 기준형 단위주거가 서로 엇갈리면서 맞물려, 단면에서 3층이 하나의 단위체로 묶이는 독창적 단위주거와 결합 방식이 제안되었다. 단면 3층 단위체는 경제적인 복도의 공유와 창의적인 단위 주거의 공간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래층 단위주거의 평면 구성에서 부부 침대가 거실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일상 생활의 프라이버시에 결정적 단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꼬르뷔지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서로 상반되는 이론들과 실제 건축물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선택하면서 이들을 변형 조합하여 자신의 건축 이론과 형태를 도출하였다. 도시 계획의 레벨에서는 하워드

25) 정성현은 꼬르뷔제의 생각이 담긴 글을 통하여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건축근원을 언어로 표현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단면 단위체의 구조적 유사성을 간과하고 단지 내부가로의 연계성만을 검토하여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에 대한 나코핀 아파트의 영향이 희박함을 주장하였다. Ibid., 189

의 교외전원도시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으며, 건물 레벨에서는 푸리에의 생활 공동체와 순수파의 오브제-타입, 해양선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단위주거와 결합방식의 레벨에서 제안된 단면 3층 단위체는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건축적 아이디어이다. 설계안의 유사성과 그 시대의 정보 교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볼 때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단면 3층 단위체에 대한 나코핀 아파트의 영향은 직접적이고 분명하다. 이에 비하여 규모와 공간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에마의 수도원과 이뮤블르 빌라의 단위주거는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 단위주거의 근원적 형태로 간주할 수 없다. 건축가는 자신의 머리 속에서 진행되는 형태 도출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마르세이유 거대 주거동의 단면 3층 단위체에 대한 나코핀 아파트의 영향을 꼬르뷔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의도적 은폐라기 보다는 자의적 해석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Maurice Besset, Robin Kemball 역, Who was Le Corbusier?,
2. Banham, R., The New Brutalism, 1966
3. David Jenkins, Unite d'Habitation Marseilles; architectural detail, Phaidon, 1993,
4. Le Corbusier, Le Corbusier 1910-1965, Praeger, 1967
5. Le Corbusier, Le Corbusier 1946-1952, Editions Girsberger Zurich, 1953
6. Le Corbusier, The Radiant City, 1964,
7. Le Corbusier, The Modulor,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8. Curtis, W.,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1996.
9. Stanislaus Von Moos, Le Corbusier Elements of a Synthesis, MIT Press, 1988
10. Roger Sherwood, Modern Housing Prototyp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11. Deborah Gans, Le Corbusier Guid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7.
12. Allen Brooks, Le Corbusier, By 편저,
13. 정성현, "마르세이유 위니떼 다비따시옹의 건축근원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4권, 11호, 1998

A Study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and the Origin of Three-story Section in the Unite d'Habitation at Marseilles

Chaeshin Yoon

(Ewha Woma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The Unite d'Habitation at Marseilles was an experimental project that Le Corbusier had been waiting for since 1920s in order to explore his ideals and visions in mass housing and city planning. As a leader of the first generation members in CIAM, Le Corbusier tried to give a new form and an order to the Unite d'Habitation at Marseilles in both building design and city planning leve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Unite d'Habitation at Marseilles in three different levels of built environment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process through which an original form is derived from its contextual settings.

In the level of city planning, Le Corbusier aimed to reshape traditional low-rise urban housing by deploying several Unites spaciouly. Le Corbusier believed that the spacious deployment of Unites would bring us both the functional economy in the city and the natural amenity in the suburbs. As Unite d'Habitation would be called frequently as vertical garden city, the influence of suburban garden city on Unite d'Habitation is apparent. In the building level, the binomial harmony of individual-collectivity was pursued by providing three different public floors and by combining 23 different family unit types in the Unite d'Habitation at Marseilles. In order to visualize the concept of object-type, family units were prefabricated and inserted into the structural frame of the Unite d'Habitation at Marseilles.

Two family units are combined to make a three-story section with street corridor in the middle. This three-story section unit is very original as it has access corridor every third floor and each unit could have considerable depth with the help of the living space of two story height. In consideration of formal and plan similarity as well as contextual edivdence, it is concluded that the three-story section of the Unite d'Habitation is derived more from Narkomfin Apartments than from the monastery at Ema or Immuble Villas.